

[27] 최 병 수

충남 아산군 도고면 금산리에 순국 열사 최 병수씨께서 잠든 조그마한 묘소가 있다. 열사 최 병수씨는 비록 독립된 이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으나 지하에서나마 이제는 일제하에서 독립되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게 외칠지도 모른다.

"나의 젊음은 헛되지 않았어. 젊음을 바친 이 조국이 이렇듯 발전하였으니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겠구나. 나의 조국 대한, 대한 독립만세!" 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선열들의 열과 위업을 배우고 기리는 것도 열사와 같은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끓는 젊음을 이 나라에 바쳤기 때문이리라.

열사 최 병수씨께서는 일찌기 해주 문헌공 부사공파 후손 종사당 최 순의 장자로 서기 1885년 7월 25일에 태어나셨다. 충남 아산군 선장면 대정리가 열사의 고향이다.

열사께서는 당시 당진군 면천면 강문리 김 일식의 여식 경주 김씨를 아내로 맞아 슬하에 4남매의 자녀를 두셨다.

열사께서는 자식에게는 언제나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이 나라가 풍전등화격에 놓인 즈음에 최 병수씨는 나의 이 젊음을 기꺼이 조국에 바치겠노라고 큰 뜻을 품고 집안일을 부인에게 맡기고 몇몇 동지들과 독립운동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밤늦게 떠나는 최 병수씨와 부인 김씨와의 헤어지는 장면에서 부인 김씨는 독립운동가의 아내답게 이렇게 말했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큰 뜻을 품고 펴지도 못한다면 어찌 사내대장부라 하겠습니까? 집안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 어서 떠나세요. 사사로운 감정은 저버리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독립하는 밝은 날 뵈겠어요. 어서 떠나세요."

"부인의 그런 말씀이 나에겐 너무도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구려. 그럼 부인만 믿고 떠나겠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유 준호란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부탁을 해 났으니 어려운 일은 잘 돌보아줄 것이요. 그럼....."

"....."

김씨는 밤 자욱속으로 떠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해 4월 4일 선장, 도고, 신창 등 3개면의 천여 명의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여 이렇게 최 병수씨는 말한다.

"이 나라가 풍전등화격에 놓인 즈음에 우리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 이 나라를 구합시다. 나라가 없는 국민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 젊은을 불살라 저들의 만행을 널리 알리며 우리의 주권을 회복합시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저들의 총칼앞에 정정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의 독립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한,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최선두에 나선 최 병수씨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 시위를 선도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사실을 안 그 당시의 헌병들의 주민학대는 말할 수 없이 심해 갔다. 그때 최 병수씨는 헌병들이 주거하고 있는 헌병 주재소에 방화를 기도하다가 그만 실패로 돌아가 주범으로 쫓기게 되는 몸이었다.

그리하여 고향을 등지고 피신처로 떠나게 되었다. 이를 안 일본 헌병들은 최 병수씨의 집에 들이 닥친다.

"문 열어라! 어서 문 열지 못하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문을 부숴 버리겠다."

헌병 대여섯 명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안에 있던 최 병수씨의 아내 김씨는 놀란 아이들을 달래 방으로 들어 보내고 문을 연다. 안으로 들어온 것은 헌병들 그중 대장인 듯 싶은 콧수염이 알상군게 난 사나이가 졸병인 듯 보이는 헌병들에게 명령을 한다.

"애들아 집안 구석을 샅샅이 뒤져라 쥐 구멍까지도, 알았나!"

"예!"

헌병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깜짝놀란 김씨는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기에 집안을 뒤진단 말이나?"

"아! 아직도 모르나! 어디 있소! 최 병수 그놈은? 당신 남편인가 원가하는 그놈말이요!"

"아니 뭐라고 이 더러운" '돼'

헌병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아니 이 아주머니가!"

하며 자기의 뺨에 묻은 침을 닦는다. 그리고 이내 이상야릇한 웃음을 띠며

"잘소 그럼 애들아!"

수색하던 졸병들을 부른다.

"아무데도 없는 데요."

졸병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자 대장인 듯 보이는 헌병이 이제는 김씨를 가르키며

"찾을 것 없다, 저 여자를 끌고 와"

하고 졸병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대문을 나서려 할때 방에 있던 최 병수의 아버지께선 이젠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놈들아!"하며 헌병들 손에 끌려가는 김씨를 가로 막아 선다.

"아니 저 늙은 영감은 어디서 나왔어 저리 비키지 못해."

대장인 듯 보이는 헌병이 총부리로 그 노인을 후려 갈긴다. 김씨는

"아버님! 이놈들아 우리 아버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손찌검까지 하느냐 너희들은 부모도 없더란 말이냐."

"지체할 새 없다. 저 여자를 끌고 따라와."

밖으로 나가려 할때 방에서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뛰어 나온다. 시어머니께선 시아버님을 일으키며 "영감!" 아이들은 끌려가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우리 어머니를 왜 끌고 가세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다가요?"

"아니 이젠 요것들까지"

채찍을 꺼내더니 후려 갈긴다. 김씨는 황급히

"아니, 이놈들아! 어린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시어머니가 김씨를 막으며

"안된다 이놈들아"

"아니 이 할망구가 저리 비키지 못해." 총으로 떠다 민다.

"어머니!"

"어서 끌고 따라와"

"아가!"

시어머니이 음성, 아이들은 끌려가는 어머니에게 매달린다. 그때마다 헌병들은 채찍으로 아이들을 때린다. 이렇게 하여 김씨는 헌병들의 손에 끌리어 헌병 주재소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갇은 고문을 가해도 김씨는 최 병수씨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반 죽음이 된채로 며칠 지난 저녁때에서야 비로소 주재소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다. 대문을 들어서서 김씨는 정신을 잃어 쓰러지고 만다. 그때 아이들이 "어머님!" 하며 달려와 어머니의 참상에 너무도 분노를 느낀다.

"이 놈의 헌병놈들!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느냐?"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으며

"이 몽둥이로 그저"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나와 쓰러진 며느리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아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애들아, 어서 어머니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셔라."

왜놈의 헌병들은 이렇듯 최 병수씨의 집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와 최 병수씨의 가족을 끌고루 돌려가며 모진 고문을 가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은 단결하여 최 병수씨의 해방을 말하지 않는다. 이 집안 소식을 들은 최 병수씨는 "이제 참지 못하겠다"하여 헌병들이 없는 틈을 타 밤 몰래 집에 오게 되었다.

"석아 , 석아!"

나직히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때 부인 김씨는 남편의 소리임을 깨닫고 반가운 듯 밖으로 나간다. 남편과의 만남, 이 얼마나 반가운가, 그러나 부인은 남편을 외면하며

"이길로 어서 떠나세요... 지금 집 주변엔 헌병들이 감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알고 있소. 그러나 집안일이....."

"떠나실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나라가 독립되는 밝은 날 뵈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그럼 어서 떠나세요."

"아이들은 잘 있나,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이들과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어서 떠나세요. 당신의 큰 뜻을 이룩하도록 두 손 모아 빌겠어요"

"고맙소. 부인, 그럼 부인만 믿고."

최 병수는 어둠속으로 사라진다. 부인 김씨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 오래 간만에 만난 남편과 따뜻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떠나길 듯 보내 놓고 보니 김씨의 애간장은 에어내는 듯 아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가? 남편이 떠난 조금뒤에 총소리와 함께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최 병수씨의 귀가를 남몰래 지켜보던 이 마을의 친일파의 청년이 헌병에게 고해 바쳐 최 병수씨를 잡은 것이다.

그로인해 최 병수씨는 더더욱 큰 뜻을 펴지도 못한 채 그만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날로 심해가는 고문에 우리의 독립운동가이신 최 병수씨는 그만 35세의 짧은 일기로 세상을 뜨게 되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나라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한이 된다. 하지만 내 눈앞에 독립된 이 나라가 보인다. 저기 저 함성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군중들의 함성소리가 대한, 대한독립만세!"

라고 끝으로 외치며 서서히 눈을 감으셨다.

이 얼마나 애석하고도 장렬한 죽음인가? 그 당시 유가족들이 열사의 시신을 간신히 헌병들 손에서 인수하여 선영밑에 모시려 하였으나 헌병측에서는 그를 반대하여 공동묘지에 봉안하였다가 8·15해방과 더불어 자손들이 즉시 선영인 도고면 금산리에 안장한 것이다.

그 후 열사 최병수씨는 해방이 되어 애국지사라는 사실을 정부에서 인정하여 1963년 3월 1일의 삼일절을 기하여 건국 공로 훈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최 병수씨의 일화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의 여운이 남게 되는 점이 있다.

친일파의 한 놈이 최 병수 열사를 죽게 한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려 놓듯이.

우리 전체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런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의 먼 미래는 맑고 밝은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꿈인 남북통일은 기필코 우리 손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명시해야 할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이 교훈의 의미를

이 이야기를 듣고난 후부터는 최 병수씨의 묘소앞을 지날때면 이런 말씨가 들리는 듯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다.

[28] 최 영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덕물산에 오래된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 위에는 풀이 조금도 나지 않고 붉은 흙으로만 되어서 사람들은 이를 "붉은 무덤"이라 부르고 있다 한다. 이 무덤은 고려 말기 유명한 최 영장군의 무덤이다.

1338년 12월 유난히도 심한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다. 사형을 당하게 된 장군 최 영은 73살의 백발노인이었다. 기울어져 가는 고려를 위해 평생을 두고 일해 온 최 영장군은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에서 끝까지 곧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려 왕조를 뒤엎고 새왕조를 세우려는 이성계에 의해 목을 베이게 된 것이다. 형리들이 늘어선 가운데 "둥둥둥" 북소

리가 울렸다. 죄인의 목을 베는 망나니의 칼이 번쩍번쩍 허공에서 춤추듯 돌아다녔다. 몸이 결박된 최 영장군이 눈을 부릅쓰고 조금도 굽힘없는 자세로 소리쳤다.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 죽이지만 두고 보아라 내가 평생에 조금이라도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졌거나 죄없는 사람을 해친 일이 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코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순간 망나니의 칼에 최 영의 목이 떨어졌다. 백발노장 최영의 죽음은 원통한 죽음이요, 고려와 생사를 같이한 죽음이었다. 그후 덕물산에 있던 그의 무덤은 과연 풀 한 포기 나지 않았다.

최 영은 1316년에 사헌 기정으로 있던 최 원식의 아들로 태어났다.

최 영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릴때부터 강직한 성품과 청렴한 마음을 길렀다. 16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는 영을 불러 놓고

"지금 우리 나라는 몹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런 때일수록 훌륭한 인물이 필요한 것이다. 큰 인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내 말을 잘들여라. 너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여라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 영은 이 마지막 유언을 가슴깊이 새기고 글 공부와 무예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나이 18세가 되었을 때는 말타기, 활쏘기, 창던지기 등에 모두 능숙해져 가고 특히 검술은 신기에 가까웠다. 최 영은 군에 입대하여 때마침 남해안을 습격해 온 일본의 왜구들과 싸우게 되었다. 왜구는 벌써 강을 건너 이쪽 들판을 향해 흙먼지를 날리며 진격해 오고 있었다. 고려군도 이에 대비해서 앞으로 나아가 양쪽 군대가 들판 한가운데서 맞부딪치게 되었을때 왜구의 대장이 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고려군도 우리도 먼길을 달려 오느라고 힘이 빠졌으니 장수들끼리 겨루어 결판을 짓는 것이 어떠냐?"

"좋다. 장수들끼리 싸우려면 나오너라"

그래서 양쪽에 장수 한 사람씩 나와 싸움이 벌어졌다. 양쪽 진영의 함성이 오르고 북소리가 사방을 진동했다. 왜구의 대장은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몸놀림이 놀라울만큼 빨랐다. 두 사람의 칼이 번쩍이는 순간 고려장수의 목이 말에서 떨어졌다. 왜구 진영에서는 "와아!"하는 함성소리가 터졌다. 그러자 다른 고려장수가 한 사람이 나오더니 왜구 장수쪽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갔다. 그러나 그 장수도 역시 왜구의 목을 베지 못하고 도리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고려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발을 구르며 분해했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나가려는 자가 없었다. 이때 어린 장수 최 영이 앞으로 나서며

"제가 나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하고는 쏜살같이 달려갔다. 달려오는 최 영의 옷차림을 보고

"저건 병졸이 아니냐? 이제 고려군의 장수도 씨가 말랐구나."

하고 코웃음을 치자 최 영은

"적장은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이 말을 들은 왜구 대장은 화를 내며 최 영에게 달려 들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쓰러진 것은 최 영이 아니라 왜구의 대장이었다. 고려군은 환성을 지르며 그대로 몰밀듯이 몰려가 왜구의 대군을 물리치고 말았다. 이리하여 최 영은 나라로부터 높은 벼슬자리로 오르게 되었고 나중에는 "도형벽상공신"이라는 큰 관직을 맡게 되었다.

이때 최 영은 후에 이조의 재상이 될 맹 사성과 그의 손녀딸을 결혼시켰고 지금의 맹 사성의 행단은 원래 최 영의 별당이었는데 그에게 준 것이라고 한다. 최 영은 높은 벼슬 자리에 있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다. 공민왕 23년 어느날에 제주도 목동 우두머리가 최 영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말을 선물로 보내왔다. 장수로서 천리마를 얻는다는 것은 금은 보화를 얻는 것 보다 기쁜 일이었지만 우두머리를 잡아 놓고 "너는 나라에 바친 공물을 사사로이 왜 뇌물로 쓰느냐?" 하며 처형했다. 또 공민왕이 암살되고 우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우왕에게는 장씨라는 유모가 있었는데 왕을 섬겼음을 기회로 나라정치에 간섭해서 말썽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신들은 아무도 그 여자를 내쫓지 못했다. 최 영은 그 여자의 행실을 왕께 아뢰고 죄를 낱알이 밝힌 다음 그녀를 처형했다. 우왕은 "과연 최

영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할 줄 아는 훌륭한 인물이다."하며 감탄했다.

최 영이 61세 되던 해 그 당시 장군인 이 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고려의 서울 개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최 영은 있는 힘을 다해 싸웠지만 끝내 이 성계의 군대에 패하고 말았다. 최 영을 본 이 성계는 정중하게 말했다.

"대감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소. 나라를 바로 잡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오니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오."

최 영은 그길로 고병현으로 귀양간 뒤에 합포천 충주 동지에 옮겨졌다가 그해 12월 이 성계의 일파로부터 사형을 당했다.

이 성계도 그의 위업을 위해 최 영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기는 했지만 그의 참된 충성심을 잊을 수 없어 조선을 세우고 임금이 된 후에 최 영에게 "무민공"이란 시호를 내려 그의 혼을 위로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잊지 않고 한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최 영! 그는 고구려의 옛 땅을 찾으려는 거래의 소망을 풀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73세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때 위화도 회군이 없었다면 넓으나 넓은 만주 벌판은 우리의 국토가 되어 고구려 국토 회복의 한을 풀고 일본 중공 등 주위 나라의 업신 여김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으리라.

그는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 때문에 한중의 흠으로 되돌아 갔지만 그의 충성심과 청렴결백한 마음은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28] 홍 가 신

이조 선조때의 공신으로 호는 만전, 본관은 남양이다. 이 분은 성동이 되기전에 성인의 의풍이 있었으며 사서삼경과 백가어에 정통하였고 필법과 시문에도 능하여 이름이 높았다. 선생은 온의 아들로써 신의가 무척 두터우셨다.

수원 부사가 되었을 때의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한다.

처음에 선생은 정 여립과 같은 해에 사마시에 합격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무엇이든 같이 논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 여립의 사람됨이 교활하고 객기가 많아졌다. 국정에 임하면서 아랫사람을 업신여기고 교활하여 남을 해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하여 선생은 속으로 몹시 안스러워 하셨다. 그러면서 정을 참되게 인도하려고 힘쓰며 차마 저버리지 못했다.

어느날의 일이었다. 홍 가신과 정 여립이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손님이 쉬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정 여립의 책 읽는 모습이며 목소리를 들은 손님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고 의리가 있지요."

하셨다. 이렇게 하여 선생은 열심히 책을 벗어나며 무슨 말이든 남이 해를 입지 않도록 무척 조심히 말씀하셨다. 정 여립과 헤어진 훗날 선생은 수원 부사가 되었다.

이때 정이 선생을 찾아 보았다. 그래서 둘은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술을 마셨다. 오랜만에 만났기에 그 동안의 정이 사람됨이 변하였나 하고 살펴보는 선생은 안타까워 했다. 정은 은근히 '주'라는 학자를 수학에 밝지 못하다며 헐뜯기 시작했다. 선생은 '주'라는 학자를 잘 몰랐으나 정이 '주'를 아마도 해하려 할 양인 것을 알고 "이는 학자가 할 말이 아니다. 어찌 같이 국정에 일하면서 남을 헐뜯을 수 있으리오." 하시며 함께 수작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정은 더욱더 교활하고 남을 해하였다. 그리하여 국정은 어지러워졌다. 이때 선생은 정이 아무래도 무슨일을 일으킬 것 같아 군비를 철저히 강화했다. 어느 날 드디어 정이 큰 무리를 이끌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닥치는대로 사람을 해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아픈 마음을 달래어 이를 진압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선생을 아는 이들은 "홍선생 참으로 선견의 지명이 있다."하여 그를 만들었으나 항시 정권을 다루는 국정의 사람들 중 그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는 홍의 계략이다."하며 친하다는 이유로 백방으로 모략을 해서 선생을 해하려 했다. 그리하여 백 유성의 탄핵으로 파직 당했다. 선생은 슬퍼했다. 자기가 파직을 당해서가 아니라 국정의 분열은 조국의 망함을 아는 이들의 서로 권세만을 탐함을 슬퍼했다. 그런 후 선생을 아는 이들의 협력으로 다시 누명이 벗기어져 복귀되었다. 이후 이 발 형제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들은 홍과 친한 이들의 하나였지만 부를 착취하기에

이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파직시키고 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혹독한 형벌을 당했다. 이들을 아는 이는 화를 두려워 하여 왕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은 홀로 부지런히 찾아 물었다. 아무리 나쁘다 해도 국정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었다.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는 법, 그로 인하여 벗을 멀리 함은 참으로 사람이 아니다" 하셨다. 이런 선생을 보는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단 하나의 벗이라며 부모보다는 참다운 친구를 사귀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또 그들이 귀양갈 때 친히 배웅하며 옷을 벗어 주며 작별했다. 그들은 귀양가는 도중 죽었다. 그 소식을 들은 선생은 친히 관을 갖추어 장사를 지냈다.

이처럼 선생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자기의 일신을 접어 두셨고 친구의 신의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시며 성인의 위품을 더욱 한 몸에 지니시어 그를 본받는 이가 많았다. 이제 오늘 날에 와서 이는 많이 잃어져 가고 있다 할 것이니 우리는 선생을 본받아 참된 삶이 무엇가를 깨달으며 살아야 하겠다.

때는 1596년이 이 몽학이 홍산으로부터 난을 일으켜서 다섯 고을을 함락시켰을 때다. 이 몽학은 함락시킨 고을을 점령하고 갖은 행패를 다 부렸다. 또한 점령한 고을의 인재는 다 잡아 갔다. 이렇듯 어수선한 때 인심 또한 흉흉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던 관습도 망가져 버려 갔다.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도 나타났다. 이렇즈음 모든 사람들은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하길 성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하였다. 옛부터 문신 집안에서 자라온 홍 가신선생님이다. 문신으로서 무기를 들음이 옳지 못하다 하여 선생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말씀 하시길 내 어찌 내 한 몸을 위해 백성을 버리고 나만을 살자고 피하겠느냐. 문신이면 어쩔다는 말이나. 또한 기강을 맡은 신하는 그 봉강에서 죽는 법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곤 계속 성을 지킬 계획을 세웠다.

이에 그 고을 관민들은 선생을 보고 깨우침에 이르렀으며 널리 이웃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을 지킬 것을 계획했다. 모든 관민이 힘을 합칠즈음 순찰사는 먼 곳에 있었고 병력은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이 몹시 걱정을 했다. 이 때 적의 선봉은 벌써 홍주에 이르렀다. 형세가 다시금 긴박해지자 사람들은 선생에게 권하여 먼저 장소를 옮기실 것을 전보다 더욱 간곡히 권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이말은 들이시지도 않으시고 아산에 있는 머느리까지도 다 불렀다. 그리고 선생은 가족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너희들을 전장까지 불러 모은 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이 관민을 구하고 나아가선이 나라를 지키는데 조금의 힘이랄도 합하자는 것이다. 비록 조그만 손일지라도 지금의 이 시간은 필요한 시기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죽는 것을 다짐하자."

하시며 가족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며 한편으론 최후에 함께 죽을 것을 계획했다. 이때 수가 최 호는 사람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곧 수영으로 빨리 오라고 전갈을 보냈다. 그러나 선생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말씀하기를

"홍주는 호서를 가로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지이다. 만일 이 성을 잃고 보면 저들의 기세는 더욱 살 것이며 반드시 서울까지 발길을 뻗칠 것이 분명하다. 이 성을 잃음은 곧 나라를 잃음과 같거늘 내 어찌 순순히 이 자리를 물러날 것인가 또한 성벽도 견고하고 병력도 차츰 완비되어 굳게 지킬 것을 다짐하리라."

라고 하였다.

선생의 결심은 이렇듯 대단하였고 성은 지켜야 했기에 수사는 드디어 선생의 말을 쫓기도 하였다. 이웃 고을 수령들과 수사는 함께 선생을 도우려고 힘을 합했다.

이 고을의 형세는 동쪽 문이 가장 완전하였고 남쪽 문은 몹시 허술했다. 그런데 선생은 스스로 남쪽 문을 밀고 수사로 하여금 동쪽 문을 지키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이전에 다른 이의 몸을 보호해 줌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선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 다니시면서 병사들에게 따뜻한 말로써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선생은 친히 주먹 밥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병사들이 감사의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마침 날이 저물고 또 비가 내려올 듯한 기세로 구름이 몰려왔다.

"우르르..... 굉" 번개가 번쩍거린다.

어두움 속에 전장의 아픔이라도 씻으라는 듯 검은 대지 위에 한 줄기 소나기라도 지나 가려는 듯 싶다. 이때 적군은 성을 포위하였으나 무기나 군사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

는 상태였다. 그런데 홍주성에는 수사를 비롯 많은 군사가 있음을 알고 있는터라 그들의 불리함을 깨닫고 적도 임 억명을 자진하여 몽학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와서 선생에게 바쳤다. 이데 선생은 임 억명을 시켜서 적도 한 손을 데려왔다. 선생은 그의 죄를 꾸짖어 한 손을 수레에 태워 서울로 보냈다. 이렇게 함으로 몽학의 난이 평정되고 다시금 호서가 안정된 상태로 되었다. 선생의 곧고 또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대단하였기에 하늘도 감동한 듯 검은 구름을 보내 주었으리라.

몽학의 난을 평정하기 이전에 선생은 평소에 정 여립과 가까이 지냈었다. 그리하여 선조 22년(1589) 정 여립의 모반사건으로 말미암아 선생은 임금에게 상서를 올렸다. 그런데 그 상서가 잘못 올려져 극진히 선생의 뜻을 전했음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임금에게 미움을 받았었다. 홍 선생의 말은 너무 곧고 간절한 데가 많았다. 그러나 선생은 마지막에는 죄책까지 받을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선생의 충성된 마음을 몽학의 난을 평정하게 할 때 나타난 선생을 보고 그의 모든 죄는 씻기어 졌다. 이에 우리는 선생의 곧고 바른 마음을 본받아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선조들의 업적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겠다.

염치면 애동리에 자리 잡고 있는 크고 작도 않은 말끔이 단장된 사당이 있다. 이것은 조선조 선조때의 문신인 홍 가신선생의 사당인 것이다. 이제까지 아산에 살면서 우리 고장의 훌륭한 분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하여 홍 가신 선생에 대한 일화를 살펴 보기로 한다.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나라 안은 온통 흩어진 잿더미처럼 무질서하고 썩어놓은 벌집이었다. 왜구의 침입때문이다. 남해안은 타고 해안선을 따라 해안가에 모여 사는 백성들을 마구 학살하고 먹을 것이라 고는 보리 한 톨 없이 강탈해 가는가 하면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도 불사르는 등 행패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생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기에 의병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편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피신 할 것을 간곡히 권유했으나 임금님은 막무가내였다. "죽어도 싸우다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할지언정 피신은 않겠다"고 하면서 굳게 닫혀진 문을 통 열 줄 을 몰랐다.

허나 왜군들이 가까이 옴에 따라 신하들은 더욱 몸달아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피눈물이 나도록 간곡히 부탁하니 그들 중에 홍 가신선생의 역할이 컸다고 하겠다.

"전하! 전하께서는 이 난리통에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러하오니 지금까지 전하를 모시고 있었던 것만해도 평생 잊지못할 큰 성은을 갚을 길이 없었으나 이제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미천한 몸을 바쳐 나라와 전하를 위해 죽어 갈 수 만 있다면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성 안은 온통 떠나갈듯한 울음 바다가 되었다.

"과인이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신들의 노고를 저버린 것 같소. 이렇게까지 신들이 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니 손들겠소."

홍 가신선생은 급히 서둘러 임금님께서도 떠나시는데 따라가서 신하의 도리를 다 해야겠으나 말도 팔아 버려서 없고 더구나 성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어 모시지 못했다. 집안 일은 뒤에 두고 오직 나라 일에만 충성을 다하였다. 집에서 또한 현명한 부인과 자식들이

"밖에서는 아버지께서 저렇게 나라를 지키기에 여념이 없으신데 한 몸 살고자 피하겠는냐! 우리도 이 고을을 지켜야만 돼. 떠날 수 없어!"하며 굳게 다졌다. 허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든 마을과 남편을 뒤에 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말도 없이 걸어서 남양으로 들어가니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이나? 이 때 선생은 향당을 통솔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농사군·상공인·하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신념만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였다. 하던 일을 내 던지고 의병이 된 이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불타는 신념이 있었기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뭉쳤다. 왜군들은 의기가 등등하여 성을 마구 기어 오르기 시작했다. 성벽을 기어 오르는 왜놈들을 의병들은 닥치는대로 쳐서 마침내 떨어지는 낙엽처럼 벌떼처럼 뿔뿔거리던 왜놈들은 산산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한참 열전이 벌어지는 중인데 한 늙은 허술한 병사가 부상을 당해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다 쓰러졌는데 마지막까지 싸우려고 일어나려 애를 써도 다리가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이것을 본 선생은 얼른 달려

가 늙은 병사의 다리에 옷을 찢어 피를 멈추도록 싸매주니 늙은 병사는 어쩔줄 몰라 눈물을 흘렸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병사들은 더욱더 힘을 다해 싸웠다. 선생은 힘을 다해

"병사들아 힘을 내라! 한치도 뺏길 수 없다!"

하니 병사들은 사기가 더욱더 충천해졌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니 마침내 왜병을 토벌해서 사로잡은 것도 많은 수효를 차지했고 목 베어 죽인 것도 적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온정이란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해준다. 인간은 사랑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내 이웃, 내 마을, 내 고장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서는 내 나라를 더욱 더 아끼고 사랑하여 명량하고 밝은 새로운 국가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아산 염티에 사당이 있다. 이 사당에는 이조 선조때의 문신, 호는 만전 본관은 남양인 홍가신선생님의 사당이다.

이 분은 문신으로써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고 품위가 단정하여 염티면내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이름을 떨치셨다. 그리고 가정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자비로움과 사랑을 베풀어서 모두에게 존경받았다고 한다. 나는 지금 이 훌륭한 분의 이름을 적으면서 가슴 깊이 느껴지는 일이 많다.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풍습을 연구하는데 이제는 재미가 들었나 보다. 전에만 하여도 우리 세대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나인데 이제는 우리의 조상을 생각하니 다만 나도 이제 조상들에 대한 훌륭한 점을 알고 그것이 바르게 나의 몸에 익혀지는 게 아닐까? 요번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홍가신선생에 대한 정신이다. 나는 어느날 학교에 와서 친구에게 염티면에 홍가신이란 분을 아니? 하고 내가 물어 보았다. 교실 구석에 있던 친구는 "그분도 모르니?"하며 나를 쳐다 보았다. "아니 조금밖에 몰라서 그래" 그랬더니 자세하게 이야기 해준다고 하였다. 친구는 "홍가신에 대한 일화를 알고 있니?"하고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서 "그건 몰라"하고 대답했다. 친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마다 열리는 제사가 있는데 홍가신 선생이 제를 올리는데 그가 제일 높은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상을 차려 가지고 성황당에 올라가 제사 준비를 하고 절을 하는데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천둥과 벼락이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홍가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열어 우리 동네에 재앙이 찾아 오는구나 하니 옆에 있던 군중들이 무슨 이유로 재앙이옵니까? 하고 묻자 홍가신은 제사상을 치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시커먼 구렁이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로 피하고만 있었다. 홍가신은 옆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구렁이를 향해 던졌다. 뱀은 입에서 피를 토하며 용을 쓰며 이윽고 죽었다. 가만히 있던 동네 사람들은 왜 뱀을 죽였느냐고 야단들이었다. 그리고 한 청년이 홍가신을 향해 우리 마을에 재앙이 찾아 온다면 당신 탓이요하고 소리소리 질렀다. 홍가신은 청년과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이 마을은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될것이요 하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뒤 정말 홍가신 말대로 이 마을은 아주 평화로운 세월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뒤에 마을 사람들은 이 분을 문장력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라고도 칭하여 졌다고 한다.

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감명깊었다. 나도 앞으로는 선인들의 슬기를 이어받은 훌륭한 학생이 되어야 겠다.

1571년에 이르러 선생의 나이 이른바 "인생 칠십 고래희"라 칭하는 일흔살이 되었다. 그해 가을 들판에서 서서히 곡식이 여물어 가고 산과 들의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달빛에 그 아름다운 광채를 들어내고 있을 때 선생의 집에 복면을 한 사나이가 선생의 집에 담을 뛰어 넘는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홍선생은 평일과 다름없이 서적을 뒤적이며 밤늦도록 학문을 통한 덕행을 쌓고 있었다. 홍선생은 밖에서 요란히 짓어대는 총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계속 책에 열중하시는데 또다시 한밤을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에 괴이히 여기고는 밖의 일에 귀를 기울렸다. 안채로 잠입한 도둑은 급히 장농을 찾는다. 한참 후 장농속 깊은 곳에서 홍선생의 부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패물과 엽전 꾸러미를 꺼낸 사나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고는 입가에 이쁨모를 미소를 띄우며 일어선다. 웬지 모르게 행동이 어설피다. 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서 위엄이 서린 수염을 쓰다듬으며 도둑을 지켜보는 홍대감이 있었다. 도둑은 당황하여 허리춤에 숨겨둔 칼을 황급히 빼들었다. 그러나 그 칼은

홍대감을 전혀 두렵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위엄이 서린 잔잔한 목소리로 "그 칼을 내려 놓거라." 그러나 당황하여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도둑의 귀에 그말이 들릴리 만무했다. "대감은 물러나시오." 홍대감은 허허 웃으며 "제법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가엾은 지고 네가 나를 죽이고 무사히라리 생각하느냐? 내 집에 무사가 여럿 있다는 건 너도 족히 알고 있을 터인데 그들이 지금 네 눈에 안보인다 해서 다 죽은 줄 아느냐?"

사실 홍대감이 여기까지 나온 것은 대감의 심복인 조 단은 말하기를 혼자인 것 같사온데 하는 것이 무척 서툴러 보입니다. 이말을 들은 홍대감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친히 이곳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다. 도둑은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만 마침내 칼을 집어 던지고 땅에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며 흐느꼈다. 대감은 도둑을 사랑채로 부르시어 그날밤을 재우고는 그 이튿날 도둑을 불러 묻기를

"너는 누구인데 어찌하여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었느냐?"

"소인은 건너 마을에 사는 김 상목이라하는 사람이온데 오늘까지 구구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사온데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이름 모를 병에 걸리시어 보름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온데 식량마저 떨어져 풀뿌리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사오니 그간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되어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생각다 못해 오늘과 같은 짓을 하게 되었사옵니다." 대감은 어머니의 약값에 보태 쓰도록 하라며 돈을 주어 보냈다. 도둑은 어쩔줄을 모르며 "황송하옵니다. 나리!" 를 연방 외워 대었다.

그후 몇해가 지난 뒤 극도로 몸이 연약해진 대감은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런 어느날 대문을 향해 급히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2년전 도둑 아닌 도둑이었던 김 상목이었다. 상목은 그동안 대감의 은혜에 보답코저 험준한 산을 헤매며 산삼을 캐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오늘 신의 축복이 있음인지 산에서 때아닌 복숭아 향기가 풍겨 그곳을 찾아가 보니 커다란 산삼 한 뿌리가 도도한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다.

"지난해 대감마님의 하늘 같으신 은혜 입사와 저희 어머니 병환이 완쾌되었사온데 오늘에야 대감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게되었사옵니다. 어서 이 산삼을 다려 대감께 드리시옵소서"

하며 산삼을 대부인께 맡기고는 스스럼없이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섰다. 부인은 영문을 모를 일에 기이해 하며

"하여튼 고맙네 젊은이"라고 말하고는 얼른 홍대감께 그 사실을 아뢰었다.

홍선생은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고는 내심 흡족해 하는 기색이었다. 산삼을 다려 먹은 탓인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지 않던 대감님의 병환은 씻은 듯이 나았다. 그후 어느날 홍대감은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기를

"나라 인심이 흥흥하면 모든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법, 올해는 가뭄이 심하여 농사가 흉작일뿐만 아니라 민심이 매말라 가고 있사온데 조세가 너무 무거워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사오니 조세를 가볍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나이다."

며칠 후 대감이 입궐하였다. 임금이 불러 이르기를

"대감의 상소문을 오래도록 생각해 본 바 대감의 뜻이 옳다고 여기니 대감의 생각대로 조세를 내리라 명하는 바이로다."

"황공하옵나이다. 상감마마"

이렇듯 홍대감은 나라안에서나 밖에서나 청렴결백하며 모든 일에 백성을 위로하는 그의 곳곳하고 소신있는 생각을 밝혔다.

이해 겨울에 임금님이 홍양에 잠시 행차했을때 주막에 허술한 선비차림을 하고 앉아 있는 임금님을 알 수 없는 고을 사람들은 몇 해 전의 도둑이야기를 하며 홍대감의 인품을 늘어놓고 있었다. 임금은 궁궐에 돌아와 홍대감에 대해서 알아 본즉 궁궐에서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공로가 있음을 알아 내고는 홍선생의 벼슬을 높였다. 선생은 나이높고 병이 오래되자 기력이 몹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허나 한 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앓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단정히 여미고 머리에 빗질하는 것과 세수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한 번도 남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려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어머니의 병환을 고쳐드리겠다는 도둑 청년이나 그러한 마음을 가상이 여겨 그를 도운 홍가신선생의 성품이나 효와 관용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일들이다.